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경찰대학교	기숙사비	755,000/한 학기
파견지역	저장성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O)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5.9 ~ 2016.6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성 별		학 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6. 07 . 14 .

파견자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저장경찰대학교에서 수업할 때 쓰는 교과서는 北京语言大学(북경언어대학)에서 출판하는 《汉语听力教程》, 《汉语教程》, 《汉语阅读教程》, 《汉语口语速成》입니다. 수업은 《汉语言阅读》(6학점), 《汉语言口语》(3학점), 《汉语言听力》(3학점)와 《中国语言与文华》(6학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학점을 이수 합니다. 만약 본인이 교양을 들기 원한다면 신청 할 수 있으며, 서예, 무용, 태권도 등이 있습니다.

《汉语言阅读》수업은 赵선생님과 王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으며, 《汉语教程》과 《汉语阅读教程》 두 권의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해주셨습니다. 수업 방식은 받아쓰기를 본 후, 본문의 새로운 단어를 예시 문장을 통하여 설명해주시고, 문법 설명을 마친 뒤 본문을 읽고 문제 풀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업과제로는 매 주에 주제 하나 씩 작문을 해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항저우의 봄, 여름방학 계획, 잊지 못할 경험, 여행 기록 등의 주제로 선생님께서 원고지를 주시면 원고지 양식에 맞추어 써가는 과제였습니다. 작문과제를 통해서 문법을 재점검할 수 있었고, 여러 주제로 글을 써볼 수 있던 기회여서 저에게 특히 많은 도움이 된 과제였습니다.

《汉语言口语》 수업은 马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으며, 《汉语言口语》 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해주셨습니다. 이 수업은 매주 한 과씩 수업해나가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수업과 달리 이 수업은 학생들의 발표와 본문 읽기, 주요 본문 외우기 등으로 최대한 회화공부에 맞춘 수업이어서, 회화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책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많고, 서면어 보다는 구어체 중심이어서 책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책과 수업 방식 모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수업이었습니다.

《汉语言听力》수업은 李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한 주마다 한 과씩 수업해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한두 달에 한번씩 HSK듣기 모의고사를 하여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는지 중간 중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던 문화수업인 中国语言与文华 수업은 赵선생님과 马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셨으며 교과서는 따로 없이 매주 프린트물이 나가고 필기를 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중국의 문화, 도시, 전통 기념일, 유행어, 사회문제 등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하였고, 그 주제의 수업이 끝난 후 《大耳朵图图》, 《大头儿子小头爸爸》라는 중국 아동 만화를 매 수업마다 한편씩 보았습니다. 만화를 보기전 선생님께서 단어 프린트를 나눠주신 후 단어를 설명해주셨고, 그 후 만화를 볼때 듣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고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도 제가 특히 좋아한 수업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곳을 알 수 있게 되어 상해, 베이징, 운남, 청도, 시안 등의 여행지를 갈 때 특히 도움이 되었고, 기본 바탕 지식이 있는 채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좀 더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 했던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조금은 다른면서도 굉장히 비슷하단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졸업 후의 상황에 대한 주제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해서 씁쓸하면서도, 동감이 가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수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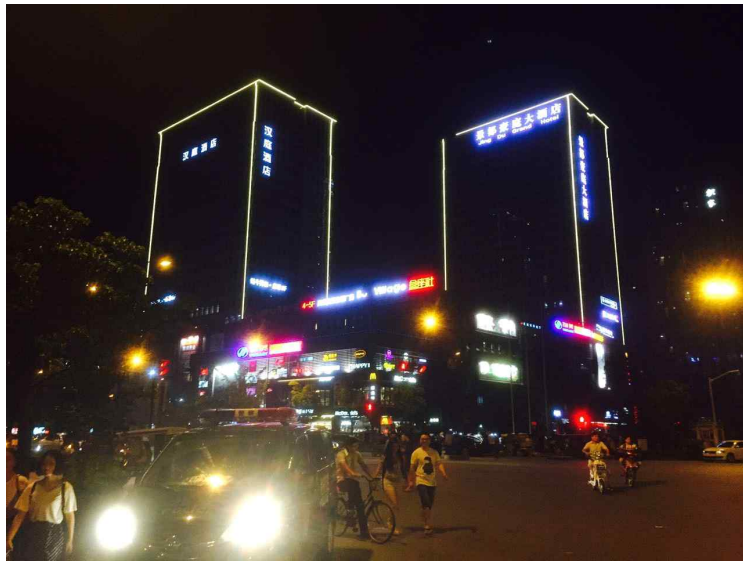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항저우는 저장성의 성도로써 굉장히 발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근처 유명한 도시로는 상해와 소주가 있습니다. 항저우의 날씨는 1년 내내 습한 편이고, 비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여름에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겨울은 기온차가 많이 큰 편이라 감기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겨울에 이곳을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기약을 넉넉히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지하철 정거장은 현재 학교 근처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지하철이 없어서 시내나, 관광지나, 기차역이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 갈아 탈 필요 없이 시후나, 기차역을 갈 수 있는 버스는 다 있으니 그래도 교통이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학교 근처 편의 시설로는 우메이와 화룬 이라는 대형마트 2개가 바로 학교 옆에 위치해 있고, 우메이 건물 옆에는 박스 빌리지는 곳이 있는데 많은 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룬 건물 옆에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쪽에는 라지지에라는 길거리 음식거리가 길게 열려 있으며, 옷, 신발, 속옷 등 많은 잡화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ktv라는 노래방도 있습니다.

《라지지에》



《우메이》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 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1. (권고 사항, 강제 아님)오후 10시 반 이전에 기숙사로 돌아올 것 2. 전기세는 내지 않지만, 정수기는 본인의 사비로 설치합니다.(물론 반납할 시 다시 돈 돌려줍니다!)		
주요사항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유학생과 달리 한국 교환학생만 좋은 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 기숙사에는 외부에서 오신 경찰 분들께서 묶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예의상 모두를 자는 시간에는 소음을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방 내부



기숙사는 2인 1실로 원래는 중국인 학생과 룸메이트 이었지만 저번학기부터 한국인 2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보통 2층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중국학생들과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달리 학교 기숙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警官樓라는 손님용 호텔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옷장, 서랍장, 책상, 의자, 에어컨, 티비, 전기포트, 컵, 드라이기와 모기약을 제공 해줄 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들께서 아침마다 바닥을 청소해주시고 쓰레기통을 비워주십니다. 휴지도 매일 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씩 이불을 갈아주십니다. 단 수건은 제공 되지 않습니다. 월래 침대는 떨어져 있으나 저희가 임의로 붙여논 것입니다. 내부 물건 배치는 자유로워요! 창문을 열면 발레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물은 정수기를 빌려야하지만 전기세는 내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드도 가능하나 신호가 좋지않은 편으므로 개인이 무선 와이파이를 가져와 연결하여 생활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 생각에 저희 학교 기숙사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굉장히 좋습니다! 휴지, 비누와 일회용 칫솔, 치약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되도록 본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장실 역시 아주머니들께서 매일 청소해주시는답니다. 수압도 좋습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 샤워기

온수도 정말 잘나오고 수압도 좋습니다. 오른쪽 플라스틱 상자 안에 샴푸와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주방

주방은 저희가 사용하는 2층제일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모든 유학생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직접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반찬들은 학교 식당에서 포장해 온 것입니다. 리오스 친구들과 함께 밥 먹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주방 안에도 에어컨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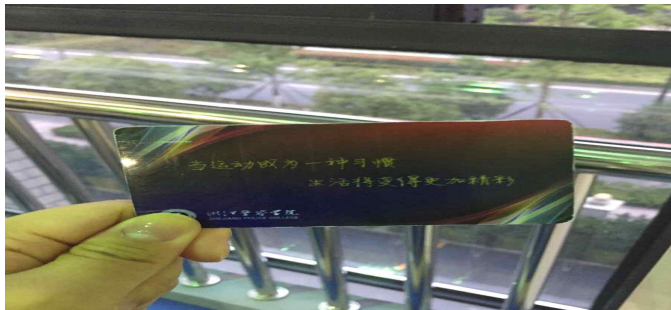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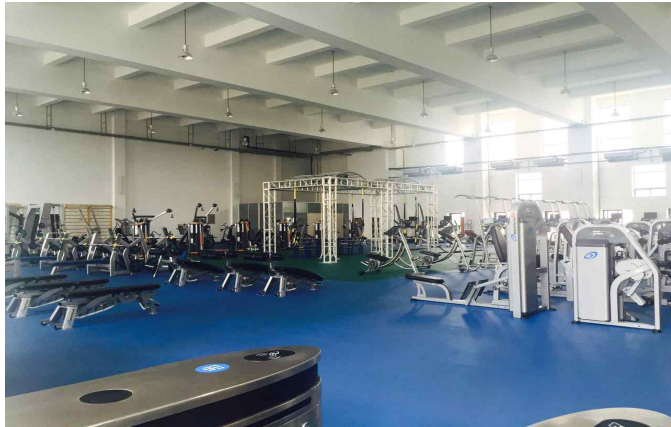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 도서관



도서관은 학교 정문 입구에서 직진하면 있는 바로 사진 속 동상 뒤의 큰 건물이며 1층과 2층에서는 책을 빌릴 수 있으며, 3층과 4층에는 사진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방, 온방 기능이 있고 있으나, 겨울에는 조금 춥고 여름에는 조금 덥습니다. 겨울에 도서관을 가실 때에는 담요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서관안에 Wi-Fi와 콘센트가 있어 노트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경찰대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 적이어서 학생증 검사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입 가능하며, 빈 자리에 자유롭게 앉아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책을 빌릴 때에는 학생증 필요합니다.

▶ 헬스장 , 수영장



헬스장은 운동장 뒤쪽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헬스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을 갈 때에는 반드시 수건과 학생증을 가져가야하며, 런닝머신을 이용할 때에는 학생증을 런닝머신 카드(말의 사진)로 바꿔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기구 이용방법은 오리엔테이션 때 다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웬만한 헬스 기구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 때는 학생들이 특히 많이 몰려 줄을 서서 입장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헬스장이 있는 건물 2층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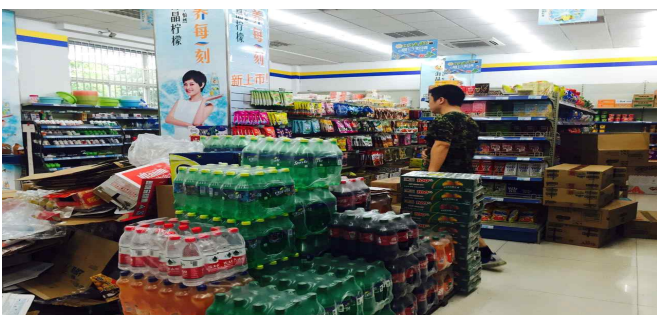
식당은 아침, 점심, 저녁, 야식시간 때에 열리며 아침은 보통 6시 반부터 8시 정도 까지 열리고, 점심은 3교시가 끝나는 기준으로 오후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열리고, 저녁은 보통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보통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야식시간입니다. 식사비용은 일반적으로 한끼당 8원에서 13원 정도이며, 포장도 가능합니다. 식당에서는 학생카드를 이용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식당안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오른쪽에는 작은 빵집이 있는데, 빵과 나이차와 커피, 생과일 주스 등을 판매합니다.

▶ 강당



식당건물 2층이 바로 강당인데, 이곳에서 완웨이(晚会)가 열립니다! 경찰대학교 학생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말 멋있고 재미있습니다! 한국 K-POP으로 댄스 공연도 자주 있고, 노래, 수화, 비보잉 공연이 있을 때도 있으며 특히 SWAT의 공연은 정말 멋있습니다! 꼭 참석해 보세요!

▶ 매점



매점 역시 식당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점 역시 학생카드를 이용합니다. 과일,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 빵, 쫄쫂, 만두, 소세지뿐만 아니라 칫솔, 치약, 볼펜, 수건, 우산과 같은 생활 필수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격은 대형마트에 비하여 조금 비싸나 많은 차이는 없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 세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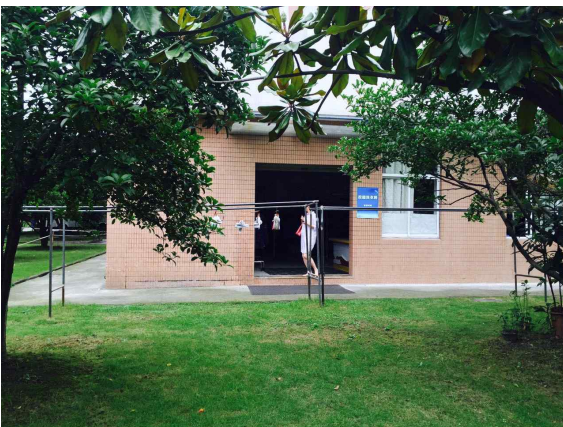
세탁실은 기숙사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건물 뒤에 다른 호텔 건물이 있는데 유학생은 그 곳 6, 7층의 중 4대의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이용비는 무료이나, 세탁기가 4대 밖에 없어 이용시간이 겹쳐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탁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텔 1층 프론트에 이름과 날짜, 세탁기를 사용하는 층수를 적어야 합니다.

▶ 운동장



운동장 가운데는 인공잔디이고, 인공잔디 밖으로 트랙이 만들어져 있고 운동장 양끝에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봉, 샌드백 등과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저녁시간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달리를 하는데 9시가 되면 불이 소등됩니다. 그 때쯤이면 사람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저는 그 시간 때에 운동장에 자주 나와 달리를 했습니다. 밤에 나와서 운동하면 바깥의 건물들의 야경들도 잘 보이고 고요해서 정말 좋습니다.

▶ 세탁소, 수선소



세탁소, 수선소 역시 식당(강당)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겨울 코트나, 신발을 맡기기 편리합니다.



▶ 우체국, 택배, ATM

학교 정문의 오른쪽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24시간 운영 됩니다. 그리고 저곳 바로 옆에 1번째 사진과 같이 공산은행 ATM이 있어 돈을 뺄 때 편리합니다.(돈을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을 집어 넣어야 할 때는 경찰대학교 앞에 중의약대학교 건물 안의 ATM에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택배를 찾는 곳이 위치한 건물에 우체국(두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EMS를 보내면 저 우체국으로 도착합니다. 저 곳에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 때는 운영하지 않으며 4시 반에서 5시 반사이에 문을 닫으니 되도록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문을 닫습니다.

▶ 강의실



학교의 강의실은 대부분 저 사진과 같은 강의실이며, 보통 2번 3번 건물의 강의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강의실 안에 에어컨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제가 교환학생을 정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공부를 깊게 파지 않고 기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를 딱 정하여 그것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 전문성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운동, 공부 등 남들에게 뒤쳐질 만큼 못하진 않지만 막상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무언가 엄청 못하지는 않지만 막상 그렇다하여 어딘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능력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저 평범한 경찰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이후로도 계속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운성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외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교수님을 보며 정말 존경스러웠고, 저도 외국어 하나라도 제 능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때 마침,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 외국은 여행으로도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중국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모든 것이 신기했고 흥미로웠습니다. 제한적인 용돈으로 정말 너무 많은 곳을 가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굶으면서 가지도 여행에 미쳐본 제 여태의 삶 중 최고로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힘을 써본 순간들이었습니다. 상하이로 시작해서 우쎌, 베이징, 시안, 운남, 쓰촨, 장가계 등등의 여행지를 가면서 물론 한국에는 없는 웅장하고 큰 풍경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스스로 대견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로 여행가는 장가계를 혼자 자유여행으로 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많은 중국인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중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던, 중국어 실력 점검 겸, 실력을 늘릴 수도 있었던 제일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지만 여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따로 HSK공부를 병행했고, 되도록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는 보지 않고, 대부분 중국 노래나, 중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써보지 않던 일기도, 중국에서는 중국에서의 유학생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썼고, 한 달 한달 공부계획을 세워 시간을 헛으로 쓰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장 경찰대학교에는 저에게 경찰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하는 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중국에서 경찰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하는지, 경찰대학교 학생들의 노력을 보며 ‘나는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구나, 이 친구들에 비하면 노력한 게 정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과 비교하며 반성 할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수화 공부도 하며, 체력뿐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완비한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능력을 가지기 위해 중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도 이 친구들처럼 경찰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장 경찰대학교에서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학교는 한국반이라는 외사와 친구들이 있어 비교적 중국인 친구를 만들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저희가 중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반 선생님이신 박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한국 반 친구들과 함께 소풍도 가고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드는 기회도 있었고, 한국 반 수업에도 참여하여 조를 나누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제 중국어 실력도 높이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것을 함께하면서 저에게 저장경찰대학교 친구들은 그저 중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함께한 잊지 못할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반 친구들 외에는 교내 완웨이에서 참가하면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교양을 통해서도 많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통해서도 타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곧 저는 한국에 가게되고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저에겐 하나하나 잊지 못할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장 경찰대학교도 단점이 있습니다. 경찰대학교는 아무래도 명령체제로 이루어져있어 물론 유학생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약간의 영향이 미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계획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미리 말해주시지 않고, 갑자기 공지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중국인 친구들과 룸메이트를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야 말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룸메이트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켜보면, 이러한 단점은 학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감수해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제교류처 선생님들께서는 유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점 때문에 가끔은 정말 속상하고 부당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이 점은 서로가 이해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대학교는 곧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광장히 바쁩니다. 하지만 덕분에 항저우와 경찰대학교는 나날이 멋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항저우보다 훨씬 아름답고 발전된 항저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